

## 공공 사진제의 시작

2024년, 옥천사진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은 실험으로 시작되었다. 몇몇 작가의 시선에서 출발한 이 흐름은 점차 지역의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확장되었다. 2026년 옥천사진제는 옥천문화원과 협업을 통해 공공의 영역으로 나아간다. 이는 단순한 주최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사진이 개인의 작업을 넘어 지역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언어로 전환되는 계기이다. 옥천사진제는 전시를 넘어, 지역의 삶과 풍경, 그리고 시간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공공 사진제로 자리하고자 한다. 올해는 “옥천, 12개의 시선”을 주제로 12인의 옥천 사진가가 6주간 전시를 펼치게 된다. 12인의 개인 작업을 통해 하나의 지역이 어떻게 이미지로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적 전시이다. 사진은 더 이상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새롭게 인식하고 연결하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 옥천에서 생산된 이미지들이 다시 옥천을 구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축적의 과정에 더 많은 시선이 함께하길 바란다.

이재복

## 2026 옥천사진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이진영

부위원장 이다경

예술감독 이재복

추진위원 강봉규 권현우 김 별 박난희 유재월

이종은 이하은 정성욱 정이품 조주영

주최 주관 옥천문화원 동그라미사진공작소

후원



충북도립대학교

2026

# 옥천 사진제

2026년 3월 31일 - 5월 10일  
옥천군전통문화체험관 갤러리

오픈식

2026년 3월 31일 오후 3시

옥천의 일상과 풍경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옥천사진제에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옥천문화원과 동그라미사진공작소가 함께 준비한 이번 옥천사진제는 우리 고장 구석구석의 삶과 기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나누는 축제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가와 주민, 그리고 옥천을 찾아주시는 관람객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시선으로 담아낸 옥천의 얼굴을 함께 바라보고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옥천문화원은 앞으로도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군민 누구나 문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진제를 위해 애써주신 동그라미사진공작소 관계자 여러분과 참여 작가님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천문화원장  
김대훈



안녕하십니까. 동그라미사진공작소 회장 이진영입니다.

2026 옥천사진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 옥천사진제를 시작으로, 2025년을 거쳐 2026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옥천 사진사의 새로운 도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인사동 충북갤러리에서 전시를 개최하며 충북 사진단체로서는 첫 사례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동그라미사진공작소가 쉽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보다 이재복 선생님의 헌신적인 지도 덕분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는 말을 실감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한 주도 빠짐없이 사진 수업과 리뷰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충북도립대 민혜남 교수님께서 “어찌 한 주도 쉬지 않고 모임을 이어가느냐?”라고 놀라움을 표하신 말씀에 빌려,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동그라미사진공작소의 미래는 더 밝습니다.**

회원 가입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인근 대전 지역에서도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8세 고등학생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1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사진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문화예술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올해는 모든 회원이 옥천문화원에 가입하고, 함께 옥천사진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용제 기간 동안 ‘지용유괴단’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에 기여했던 마음을 이어, 앞으로도 옥천 문화예술 발전에 작은 힘이지만 보태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그라미사진공작소가 오늘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규철 옥천군수님과 옥천군의 노력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옥천군이 인구 5만을 회복하며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동그라미사진공작소 또한 옥천 문화예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옥천의 사진가들이 대한민국에서 빛날 수 있도록, 옥천사진제의 내실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그라미사진공작소 회장  
이진영

옥천 사진가 릴레이 개인전



정이품

한국인  
2026년 3월 31일 - 4월 5일



이종은

모녀: 동행  
2026년 3월 31일 - 4월 5일



박난희

걷다 보니 사진이 되었다  
2026년 4월 7일 - 4월 12일



정성욱

삶은 이동 중  
2026년 4월 7일 - 4월 12일

옥천 사진가 릴레이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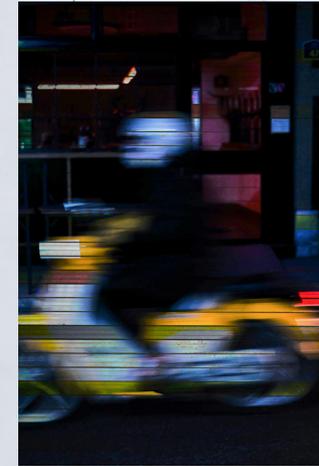
김별

별별 고양이들  
2026년 4월 14일 - 4월 19일



유재월

두 사람의 식탁  
2026년 4월 14일 - 4월 19일



조주영

청춘의 한 가운데에서  
2026년 4월 21일 - 4월 26일



이하은

32,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2026년 4월 21일 - 4월 26일

옥천 사진가 릴레이 개인전



권현우

모르는 척하는 이웃들  
2026년 4월 28일 - 5월 3일



강봉규

한강 다리와 야경  
2026년 4월 28일 - 5월 3일



이진영

차나 마시고 가게, 용암사  
2026년 5월 5일 - 5월 10일



이다경

자발적 고독  
2026년 5월 5일 - 5월 10일